

지역 소식통

김제시,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중간보고회 개최

김제시 보건소는 30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이광수 김제시 부시장을 포함한 지역 보건의료사업의위원, 보건소 소장 및 실무 담당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황 경과 보고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설명 및 토론이 진행됐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김제시 주민의 보건의료 의식 및 행태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중장기 수행 계획으로 △보건의료 인프라 및 대응 역량 강화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체계 구현 △다분야 연계·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책기반 강화로 4개 전략, 10대 지표, 25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공동주택 고공시설물 보수 지원

완주군이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개·보수비용을 총 사업비의 70~90%까지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규모별 차등 지원한다.

또한, 입주민의 의사결정 및 동별 대표자·입원 선출 투표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온라인 투표 서비스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접수는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완주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290-2874)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경학 건축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공공시설물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기자

새만금 중심도시로 '힘찬 도약'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발대식 개최... 새만금 개발 가속화·관할권 확보 추진 박차

김제시는 시의 미래 희망인 새만금 개발 가속화와 새만금 권역 관할권 확보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발대식 행사를 30일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강병진 임시 위원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시민들과 정성주 김제시장,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홍영석 도의원, 나인권 도의원, 김제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1부 발대식 행사와 2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관련하여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양광식 교수 주재로 설명회를 가진 가운데 설치 당위성 및 구성 시기 등을 가지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1부 발대식은 개회식에 이어 김진수 새만금전라각장의 새만금사업 및 시

민연대 활동내용 설명, 결의문 낭독 및 시민연대기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새만금 관련 현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서의 대외적 위상 제고를 통해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우뚝 서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부 행사에서는 최근 새만금과 김제, 군산 부안의 3개 시군간 이슈가 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과 관련하여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양광식 교수 주재로 설명회를 가진 가운데 설치 당위성 및 구성 시기 등을 가지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는 2009년 새만금 김제 뒤편

기에 매진한 이후로 2021년 1월 새만금의 중심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로 최종 결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이후에도 이반에 발족하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함께 새만금 동서도로 등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연대와 시민들의 열의를 담아 김제 미래 발전의 원대한 성장동력이 될 새만금의 관할권 확보와 각종 사업발굴을 통해 해양 성장동력을 되찾아 과거 해양도시로서의 영광을 다시 누리고, 나아가 전북권 4대도시로 응모할 수 있는 김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만금 개발 가속화와 새만금 권역 관할권 확보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발대식이 30일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제시, 작년 수출액 3억불 달성... 비약적 성장 이뤄

전년 대비 수출규모 32.2% 대폭 증가... 수출지원사업 큰 역할

김제시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김제시는 2021년에 2억 4,735만 불의 수출을 달성했는데 2022년에는 3억 2,710만 불(2023.01.18 환율기준 4,04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2.2% 증가하였다.

김제시가 2022년에 수출 강세를 보인 주요품목으로는 반려동물 사료(1억 1,997만 불), 자동차 부품(7,742만 불),

특장차 류(2,239만 불) 등이 차지하였고, 주요 수출국으로는 일본(8,147만 불), 미국(8,111만 불), 태국(2,448만 불)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관내 수출기업의 상승세 역시 돋보여 농업회사법인(주)한우물(주)유니캡프(주)가자 등 다수의 김제시 기업이 대형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K-푸드 트렌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수출 유망기업으로 (주)에이치알이앤아이(수출회

우수), 농업회사법인(주)이엔푸드(처음 수출회수수), 티아이케이(수출성장 우수)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로얄캐닌코리아(유)가 1억불 수출의 탑, 반석중공업(주)가 5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김제시는 2019년 11월에 도내 최초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기존 3개 사업과 더불어 신규사업으로 '해외 전시회 개최 참가 지원사업'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내 착용 의무 유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기로 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안내 홍보에 나섰다.

김제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방역 당국이 제시한 해제기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체 안정화로 지난 27일 열린 중대본에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

율·권고 완화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포함) △약사법에 따른 약국 △통근, 통학차량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정성주김제시장, 구미·동해·안산 등 7개 지역에 기부 동참

정성주 김제시장은 30일 농협 김제시지부를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

정 시장은 이날 김제시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은 경북 구미시, 강원 동해시, 경기 안산시, 전남 완도군, 부산 영도구, 서울 은평구 및 관악구 등 7개 지역에 20만원씩 기부했다.

정 시장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자매(우호)도시 및 도내 지역민, 출향민 등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혜택과 담례품 제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1석 2조의 제도로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2월 중에는 제도 활성화와 자매(우호)도시와의 상생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들과 자매(우호)도시를 연계하는 뜻깊은 기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고향 뿐만 아니라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관심이 있는 지역이면 어디에나 기부할 수 있고, '고향사랑'을 사이트나 전국 농협 방문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부가 가능한 제도이다.

김제시에 기부하면 농산물꾸러미, 쌀, 고구마 말랭이, 축산김떡, 모싯잎 송편, 김제사랑상품권 카드 포인드 등을 담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비대면 간편 신청 가능·3-4월 농지 소재지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완주군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는 비대면, 방문으로 이뤄진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 간이며, 대상자는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3월2일부터 4월 28일까지 2개월 간이며,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이다.

완주군은 4월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5~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증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자 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2019년도 미지급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직불금 등록 신청 시 농지 변동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경작면적이 달라졌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본인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최장역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해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실경작 확인과 특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겠다"며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기자

Advertisement for Jeonju Maeil newspaper featuring a field of sunflowers. Text includes: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9회 무주반딧불이 전국스키·스노보드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전주대학교 총장 박진배",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